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지원, 유기관 30여명이 의령읍 중리에 위치한 과수농가(블루베리)방문,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블루베리 농가 일손지원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손이 부족한 농가에 보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경) 지원, 유기관 30여명이 의령읍 중리에 위치한 과수농가(블루베리)방문, 농촌일손돕기에 나섰다. 22일 밝혔다.

지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블루베리 수확기를 맞아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손이 부족한 농가에 보탬이 되

고자 관내 유관기관(지역 농협)과 함께 과수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로써 과수농가는 금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수 수확에 힘을 보태준 직원들에게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경 지사장은 “영농기철 일

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지만 소중한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안전한 영농기반 조성,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실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